

육계 분양 후 일주일 성공사육의 50% 이상을 좌우한다



정상일 차장
(주)계홍

병아리가 우리 농장에 분양되어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클 것인가? 사육하고 있는 내 농장의 주 단위 증체량은 얼마나 되는가? 출하시기까지 일일 성장률은 과연 몇 g 정도인가? 짐작으로 또는 어림잡아서라도 자신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농장주가 과연 몇 %나 가능할까?

대부분의 농장 사장님들은 입가에 맴돌지만 쉽사리 밖으로 표출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7일령 평균체중이 대부분 입추중량의 4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농장 사장님들은 초기에는 항생제 클리닝과 백신일정 조정 그리고 약추 등의 선별 작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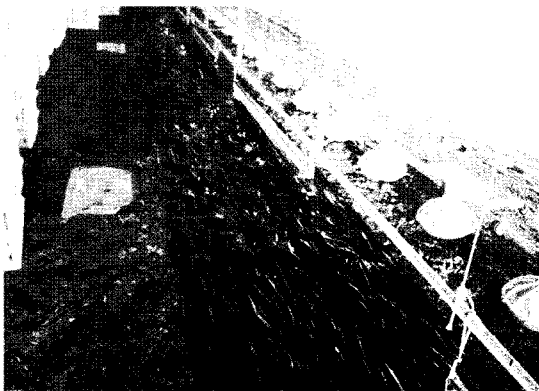
필자는 초기 7일간의 관리 중 보조 급이

기·급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병아리 = 아기’가 아닐까 싶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태어난 병아리를 계사 바닥에 풀어놓고 사료는 사료라인에, 물은 급수기에 있으니 찾아서 먹어라 하는 식의 관리를 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병아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석구석 계사 바닥에 보조 급이기·급수기를 놓아주고 비닐과 종이의 바스락 소리를 이용해서 병아리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편한 상태로 첫 사료와 첫 물을 먹도록 하는 농장이 있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의 육추관리는 성장률과 균일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용인에 의해 병아리의 품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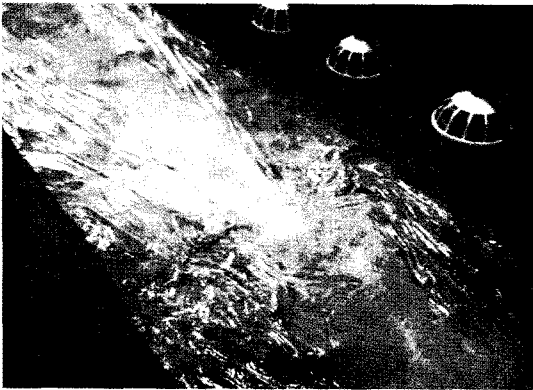
비닐위 급수 및 보조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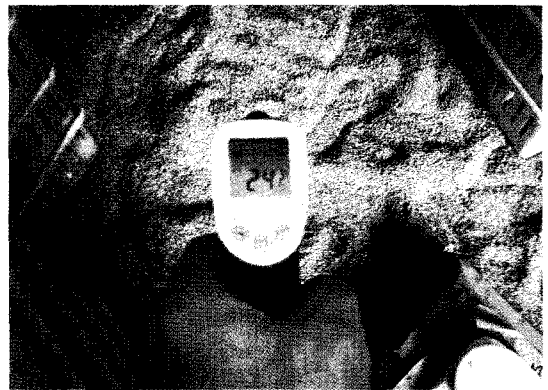
육추준비에서 보조물통이 필요하다.

〈표 1〉 입추중량 대비 7일령 증체비율 비교

구분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E농장	F농장	G농장	H농장	I농장	J농장
입추일	2/4	2/12	2/19	2/25	2/26	3/11	3/12	3/15	3/18	4/6
1일령	39g	41g	37g	45g	43g	42g	38g	41g	43g	41g
7일령	168g	151g	164g	178g	187g	147g	170g	192g	165g	174g
증체율	4.3배	3.7배	4.4배	4.0배	4.3배	3.5배	4.5배	4.7배	3.8배	4.2배
보조급이	사용	없음	사용	사용	사용	1회사용	사용	사용	2회사용	사용
보조급수	사용	없음	사용	없음	사용	없음	사용	사용	없음	사용



비닐위 습사로 급이 모습



바닥 예열온도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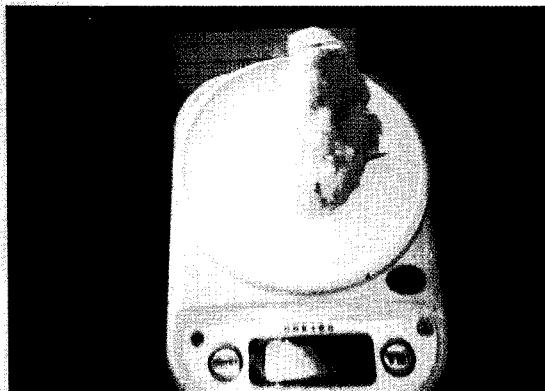
렇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밥은 밥통에, 물은 냉장고에 하며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최근 들어 시설이 현대화로 개선이 되면서 예전처럼 급이기·급수기가 부족한 현상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초기 시설 공사 시 충분히 설치를 하고 있어 “내 농장은 급이기와 급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농장주 분들이 있기도 하다.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급이·급수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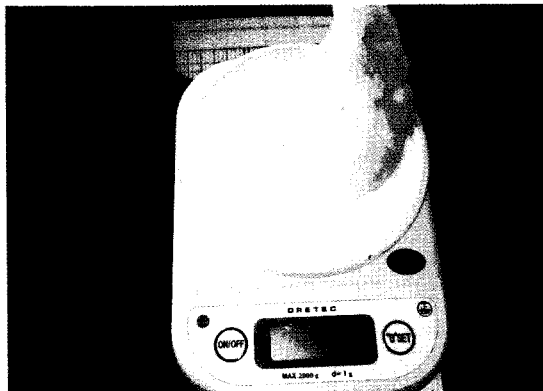
분양 후 초기 1~7일 동안은 체중의 3.5~5배, 8~14일 동안에는 2~3배, 15~21일 동안

에는 2배, 22~28일 동안에는 0.5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육 중 특이점이 없다면 대부분 28~33일 사이에 출하가 이루어진다. 4주간의 사육기간을 기준으로 그중에서 중량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은 1주일 내 4배가 아닌 4.5배 이상의 증체량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경우는 최근의 경우 10농장 기준으로 3~4농장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농장은 성적향상을 위한 방법이지 부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닌 것이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육된 농장에 대하여 병아리 분양당시 중량과 7일령 성장률을 체크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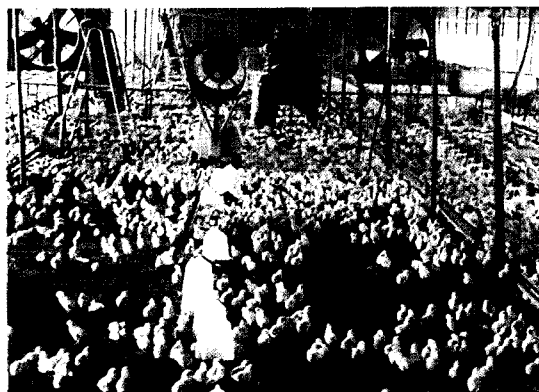
병아리 중량체크



병아리 중량체크



입추 후 3일령 모습



보조 급이기·급수기 모습

이상의 증체율을 보인 농장의 경우 개개인 별로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보조 급이기, 급수기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관리한 농장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농장별로 환경차이가 있어 비닐을 깔고 초기사료 급여에 있어서 습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보조 급이기·급수기를 6일령까지 운영하다 이후 점차적으로 3일 정

도에 걸쳐 빼내는 농장 또한 있다. 이는 한번에 빼냄으로 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인근의 기존 급이기·급수기에 적응을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역시 분양 전 충분한 바닥 열의 예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며 예열 온도 역시 계절에 따라 일부 편차는 있지만 기본 20℃ 정도의 온도는 항시 유지해야 하

7일간의 초기관리는 체중대비 일평균 65%에 달하는 증체율을 보이는 기간으로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며 분양 완료후 온도를 서서히 잡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양된 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퍼짐이 빠르며 급이·급수의 시간이 단축되어 운송으로 인한 일부 탈수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초기 약추 및 층어리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주일 성장률에 있어서도 4배 이상의 성장을 도모하여 전체적인 성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최고의 성적을 내려 많은 노력을 하지만 7일간의 초기관리는 체중대비 일평균 65%에 달하는 증체율을 보이는 기간으로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한번쯤은 경험해본 탈수에 의한 초기 약추 발생과 폐사를 보면 결국 사료와 물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생기는 현상이며, 분양당시 계군이 신계 또는 노계군이라면 더욱더 초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대부분 기존의 방식대로 관리를 하며 무심코 넘기는 경향이 적지 않다.

유창계사이지만 성적이 월등한 농장, 또는 무창계사이면서 성적이 같은 무창계사에 비해 성적이 월등한 경우, 주변의 농장주들은 그 농장이 사료나 음수로 어떤 제제의 약품을 별도로 타는지 궁금해 한다. 그 농장의 초기 관리 패턴이 아닌 바로 약품의 사용을 성적 향상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농장들은 초기 관리에서부터 타 농장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부분 방법의 차이이긴 하나 보조 급이기와 급수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초기 많은 성장률로 인해 적절한 영양제와 대사촉진제 등의 투약으로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초기관리란 '짧은 시간내 많은 수의 계군이 사료와 물을 원활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기관리의 정의가 아닌가 싶다. 약품을 주더라도 많은 수가 단 시간내에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약품 투약의 효과가 극대화 되듯이 말이다. 